

수랑공원에 어린이물놀이장 들어선다

재미있는 도시 '펀시티 광주' 사업 유아숲 놀이터도 함께 조성

토지보상 중...2024년 완공 목표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중인 수랑공원 내에 대규모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조성한다.

광주시는 "재미있는 도시 '펀시티(Fun-City)' 조성 사업 중 하나로 광산구 우산동 수랑공원 내에 어린이들을 위한 다목적 물놀이장 및 유아숲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다목적 물놀이장은 첨단 '시민의 숲'에 있는 물

놀이장과 비슷한 규모(약 2000㎡)로 마련되며, 평소엔 놀이터로 이용하고 여름 시즌이되면 20cm 정도의 물을 넣어 동시에 400여명이 이용 가능한 물놀이장으로 활용한다.

다목적 물놀이장에는 터널형 분수, 미끄럼틀, 조합놀이대 등을 설치하고, 바닥에는 아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폭신폭신한 탄성포장재 등을 배치할 방침이다. 또 물놀이장 주변에 파고라 및 데크 등을 조성해 온 가족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물놀이장과 함께 조성되는 유아숲 놀이터에는 흙놀이대, 정글집 등 친환경적인 놀이시설을 설치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모험심과 운동력 등을 길러 줄 수 있도록 하고, 숲에 사는 동식물 관찰

및 나뭇잎을 이용한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등 어린이의 창의성 등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민간공원조성사업 대상지인 수랑공원은 민간공원 사업자 부담으로 토지보상부터 공원조성 사업까지 추진되며, 현재 토지보상을 추진 중이다. 올 상반기까지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공원사업을 착공해 2024년 완공 예정이다.

박금화 광주시 공원녹지과장은 "시민들이 도심 숲속에서 여가 및 문화생활 등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등 시민들이 부담없이 찾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일가정양립지원본부,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

여성 고용유지·예방 협력망 등

인사노무상담 대상 기업 모집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일하는 여성이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예방하고 지원하는 '2022년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은 여성과 기업을 대상으로 경력단절예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고용유지 지원 및 지역사회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올해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은 여성 고용유지 지원, 직장문화 개선 지원, 경력단절 예방 협력망 구축, 경력단절 예방 인식개선 강화 사업 등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특히 여성 고용 유지 지원 사업으로 대학생과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시피에이(CPA) 검사와 잡(JOB)테라피, 퍼스널컬러진단 및 이미지 브랜딩을 제공하는 '구직준비단계상담' 사업을 추진한다. 또 기업에 공인노무사를 파견해 인사노무, 취업규칙 등에 관한 전문상담을 지원하는 '일터혁신컨설팅'을 통해 효율적인 기업운영과 건전한 직장문화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명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다양한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을 추진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통해 지역사회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 고객만족 아이디어 시민공모전

6월 8일까지...1인 2건까지 응모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시민참여형 고객만족 이벤트를 위한 '고객만족 아이디어 시민공모전'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의 목소리를 공사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편의 증진 및 불편개선 방안 ▲위드코로나 시대 비대면 서비스 방안 ▲연령대별 맞춤형 서비스 방안을 주제로 내걸고, 시민 눈높이에서 바라본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수받는다.

광주도시철도 이용 고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기간은 오는 6월 8일까지다. 응모양식은

공사 홈페이지(www.grtc.co.kr) 또는 블로그(blog.naver.com/grtc)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이메일(csvoc@grtc.co.kr)로 1인 2건까지 응모할 수 있다.

접수된 응모작은 2차례의 내부 심사를 거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우수상 1명에게는 교통카드 10만원권을 지급하는 등 7건의 당선작에게 소정의 선물을 증정한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윤진보 사장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고객서비스를 펼치고자 이번 공모전을 준비했다"면서 "시민과 항상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광주도시철도가 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연매출 3억원 이하까지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광주시 장려금 지원 확대

광주시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 대한 장려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 스스로 퇴직금(공제부금)을 적립해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에 대비하고, 사업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공적 제도다.

가입자가 5만원~100만원까지 선택해 납부(월납 또는 분기납)하고,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공제사유 발생 시에는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다.

연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공제금에 대한 압류금지, 복리이자, 무료 상해보험 가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2018년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작해 연매출 2억원 이하 신규 가입자에게 월 1만원씩 1년간 지원해왔다.

올해는 1월 1일 이후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까지로 확대해 수혜범위를 넓혔다. 총 지원 대상은 8000여 명이며, 주점업(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장, 도박장, 비의료안마업, 무등록소상공인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해당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은 현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사업 시행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또는 광주전남지역본부(062-955-9966)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규 광주시 민생경제과장은 "더 많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기보배·안산 배출 광주여대에 '양궁 스타 포토존'



광주시가 안산, 기보배, 최미선 등 세계적인 선수를 배출한 광주여대에 '양궁 스타 포토존' (조감도)을 설치한다. 광주시와 광주관광재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디자인 공모를 통해 '모든 이의 염원을 담아 꿈을 쏜다'라는 주제로 응모한 파노이엔디의 작품을 선정했다.

광주시 뇌병변 장애인 용품 지원 대상 확대

3~64세 최대 300여명

광주시는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 대상에 소득에 관계없이 장애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 만 3~64세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광주시는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형성을 위해 2021년부터 저소득 뇌병변장애인 대상으로 대소변 흡수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소득기준 제한과 임원중인 장애인은 제외돼 경제적 자립과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는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병원입원 대상자가 포함된 것으로, 최대 300여 명까지 지원하고 향후 연차별로 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

할 계획이다.

연령은 신청일 기준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 월 또는 2~3개월 주기로 대소변 흡수용품, 위생용품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면 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수행기관인 광주시 남구장애인복지관(062-611-1921)으로 접수하면 된다. 심한장애로 확인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송숙란 광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이 뇌병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문화예술 경험·만족도·제안 등

광주시 문화정책 수립에 활용

광주시는 "문화예술 수요자를 위한 문화정책 수립을 위해 시민 문화향유 실태 조사를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시민들의 문화생활 현황과 참여 실태, 관심도와 만족도 등을 조사해 문화향유 특성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 변화하는 문화생활 트렌드와 코로나19 이후의 달라진 현상을 심층·분석해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문화정책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공급자인 지역 문화예술인의 관점에서 광주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광주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는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수요자로서 일반시민과 문화관심집단(광주시 문화행성 서비스 이용자)이 주요 대상이다.

조사는 성별, 연령별, 거주 지역별 등 다양한

계층과 여건을 고려해 최소 2000여 명 이상의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문화·여가활동 실태, 문화예술 관람 및 만족도, 문화예술 참여 및 인식, 문화기반시설 환경에 대한 만족도 등 기초조사는 물론 소득수준과 문화향유 관계, 코로나19 이후 문화생활 변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시민 문화향유 추이 등도 다방면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6월 초 착수해 올해내로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분석 결과는 향후 광주시 문화정책·사업의 핵심 방향을 설정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김준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지난해에는 문화예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 개발에 주력했다"며 "올해 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는 지역 문화예술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만족하는 품격있는 문화 일류도시에 걸맞은 문화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돈돈한

실손의료보험!

지키자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